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국내기업의 극동지역 진출사례와 향후의 진출전략

책임작성 | 이재호 연구위원(02-707-9845, jhlee01@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극동러시아의 경제구조
3.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의 주요 수단
4. 국내기업의 진출사례와 향후의 진출전략

| 요약

- 극동러시아는 러시아 영토의 약 36%(한국의 약 70배)에 이를 정도로 광대하나 인구(약 800만)가 적고 제조업 기반 등이 매우 취약
 - 전통적으로 농림수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의 생산과 수출에 의존해온 경제로 제조업 생산점유율은 러시아 전체의 1.7%에 불과
 - 이에 따라 극동러시아의 산업구조는 대체로 원유, 가스채굴 부문에 집중(28%)되어 있으며 교통·통신(13.2%), 도소매(10.6%) 등 서비스업이 다음을 차지하고, 제조분야는 5.4%대로 농림수산업(7.1%) 다음에 위치할 정도로 매우 취약
- 러시아 정부는 푸틴 집권 3기인 2012년부터 소위 '신동방정책'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극동러시아의 개발 및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
 -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이 전체 수출의 70%이상, GDP의 25% 내외, 재정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불균형적인 자원의존적 산업구조를 보유
 - 또한 경제성장의 동력과 결실이 산업측면에서는 에너지 부문, 지역적으로는 유럽인접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극동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낙후
 - 에너지 수출주도의 경제구조 개선과 균형적인 지역발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서의 편입 등을 위해 2012년 이후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을 본격 시행

- ‘극동개발부’(2012년 5월), ‘극동개발공사’,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경제특구’, ‘극동개발펀드’, ‘러-중 농업펀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이 본격화되자 중국, 일본, 한국 등 러시아 인접국들은 극동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 중국은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교통 및 에너지, 농업개발 등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도 8개 프로젝트, 80개 세부 프로젝트의 추진에 합의
- 우리 정부도 3차 동방경제포럼(2017.9)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개의 다리’ 전략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

■ 지금까지 국내기업은 해운·물류 및 무역, 유통, 건설 등 서비스업과 농업 등을 중심으로 주로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진출

- 지리적 인접성 및 물류인프라 활용의 용이성 등 이유로 주로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선호하고, 현지 제조업 인프라가 열악해 제조업 진출은 거의 부재
- 정부 역시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사업을 거대한 초국경 협력프로젝트(에너지 및 교통인프라 등)에 중점을 두어왔다는 측면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
- 그간의 적지 않은 북방경제권에서의 진출 논의에 비해 실제 국내기업들의 진출실적과 성과가 그에 걸맞게 성장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이 본격화 되고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출 가능한 업종부터 진출의 선점효과를 확보할 필요

-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초국경 사업이 가장 파급력이 큰 사업이나 이는 북한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하기에 그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사안
- 극동러시아 진출시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진출 및 사업기회를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

■ 국내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방안 모색 시 ‘한-러 극동포럼(2019.5)’에서 대표적 협력 기대산업으로 제시된 목재가공업, 조선업, 수산가공업, 양식업 등의 사업가능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

- 각 선도개발구역이 유치·육성하고자하는 업종과 진출업종을 일치시키고 세제 및 인프라 제공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예: 미하일롭스키(농축산물 가공), 발쇼이 카멘(조선산업), 니콜라옙스크(수산물 가공), 나제진스카야(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등 제조분야)
- 한편 세부적인 진출전략 모색시 몇 가지의 진출모델을 설정하여 전략을 모색할 필요
 - 진출모델은 틈새시장 공략형(단순공정 진출), 현지자원 활용형(농림수산자원 가공업), 기술활용 협력형(의약품제조, IT·전자 등), 현지공단 진출형(나제진스카야 전용단지) 등으로 구분가능
-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각종 입찰정보 등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과 기술협력 등을 위한 R&D협력방안의 모색에 노력할 필요
 - 현지에 기반을 둔 KOTRA를 적극 활용하되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체계의 구축도 고려
 - 극동연방대학이 정부지원 하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혁신단지(R&D분야: IT, BT, MT 등) 등에서의 참여 및 R&D협력방안 등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

서론

- 러시아는 푸틴 집권 3기인 2012년 이후 ‘신동방정책’을 통해 극동러시아의 개발 및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
 -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주도적인 경제구조의 개선과 균형적인 지역발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의 편입(동북아 중심의 산업 가치사슬에의 진입)등을 위해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을 본격 추진
 - 러시아의 극동개발이 본격화되자 중국과 일본 등 러시아 인접국들은 극동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기업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
 - 우리 정부도 ‘9개의 다리’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북방정책’ 구상을 제시하면서 극동러시아 개발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
- 그러나 그간의 노력과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 중소기업들의 진출실적과 성과가 아직은 그에 걸맞게 성장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선 기업입장에서는 극동러시아의 사업인프라(제조업기반, 교통물류, 노동력 부족 등)가 전반적으로 열악했다는 점이 기업진출의 걸림돌로 작용
 - 또한 ‘신북방정책’을 통해 추진하는 주요 협력사업도 거대 초국경 협력 프로젝트(에너지, 교통·물류망건설 등)에 중점을 두어왔다는 측면도 반영
-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이 본격화 되고 동 지역에 일정한 투자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기업진출을 통해 극동러시아 지역을 북방경제권 개척의 교두보로 삼을 필요
 - 그간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산업들이 성숙기에 도달했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
 - 최근 극동러시아는 본격적인 개발정책의 영향으로 사업 환경과 인프라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극동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
 - 본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 그간 국내기업들의 극동러시아 진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기업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1. 극동러시아의 경제구조

- 극동러시아¹⁾는 러시아 영토의 36%를 점유하나 러시아 전체인구 약 1억 4,389만명중 불과 약 5.7%(약 8백만 명)를 차지하고, 지역 총생산 비중도 5.4% 수준에 그칠 정도로 인구와 경제적 위상이 취약
 -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 GDP의 25% 내외, 재정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원의존적인 산업구조를 보유
 - 특히 극동러시아는 러시아 경제의 취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도 러시아 전체에서 제조업 생산 점유율은 1.7%(2016년 기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극히 취약
 - 따라서 극동러시아는 에너지 의존적, 제조업 기반 취약, 적은 인구와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 산업육성에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극동러시아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벨기에와 대만 등으로 나타남

〈표 1〉 극동러시아의 주요 국가별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국가	2017년			2018년			교역 증감율 (%)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중국	5,080	2,690	7,770	6,441	3,360	9,801	26.1
한국	6,138	967	7,105	9,158	564	9,722	36.8
일본	4,822	583	5,405	6,121	494	6,615	22.4
벨기에	2,364	13	2,377	2,313	32	2,345	-1.3
대만	392	40	432	851	41	892	106.5

자료 : 극동세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재인용

- 주요 수출국은 한국(32.5%), 중국(22.8%), 일본(21.7%), 벨기에(8.2%)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53.5%), 한국(8.9%), 일본(7.9%)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97억 2,200만 달러로 전년 교역액(71억 500만 달러) 대비 36.8% 증가하여 최근 교역회복세를 시현

1) 러시아는 약 8개의 연방관구(극동, 시베리아, 우랄, 북서, 불가, 중앙, 남부, 북캅카스)가 있으며, 극동러시아는 이 가운데 '극동 연방관구' 지역을 의미

- 그러나 교역의 대부분은 극동러시아로부터의 수입으로 약 91.6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수출은 단지 5.6억 달러 수준에 불과

- 극동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성 연료(58.3%), 농식료품(13.3%)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차량 및 기계류(49.9%), 농식료품(14.2%) 및 화학제품(10.6%), 철강(9.3%) 등임

〈표 2〉 극동러시아의 주요 교역품목(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수출액	비중	수입액	비중
01-24	농식료품	3,755	13.3%	894	14.2%
25-26	금속광물	739	2.6%	140	2.2%
27	광물성연료	16,461	58.3%	102	1.6%
28-40	화학제품	68.3	0.2%	668	10.6%
41-43	모피, 가죽	0.56	0.0%	19	0.3%
44-49	목재, 제지	1,159	4.1%	88	1.4%
50-67	섬유, 의류	2.7	0.0%	325	5.2%
72-83	철강	532	1.9%	586	9.3%
84-90	차량, 기계류	1,453	5.1%	3,135	49.9%
68-71,91-97	기타	4,042	14.3%	430	6.8%

자료 : 극동세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재인용

- 극동러시아의 수출입품목이 러시아 전체 수출입품목의 구성과 다른 점은 수산물과 농식료품 등의 수출비중이 높고, 일반 기계류 수입비중이 러시아 타 지역보다 높다는 점으로 이는 지역 내 제조업기반의 취약성을 반영
- 우리나라의 경우 극동러시아에로의 주요수출품은 기계부터 식료품, 화장품까지 매우 다양하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등 에너지원과 수산물에 집중
 - 특히 수출품목 중 꾸준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가공식품과 화장품인데 이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문화 등에 많이 노출되면서 한국 소비재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 한편 극동러시아는 영토가 광활하고 산림 및 수산자원 그리고 에너지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오래전부터 원유 및 가스채굴 부문에 집중해 온 탓에 관련 산업이 잘 발달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

〈표 3〉 극동러시아 연방주체별 산업구조(2016년 기준)

(단위 : %)

구분	농·어업	자원채굴	제조	전기,가스	건설	도소매	교통, 통신	정부 부문	기타
사하공화국	1.7	51.6	1.1	4.5	8.2	6.1	8.0	5.1	13.7
캄차카	22.0	7.7	10.2	6.0	4.1	8.2	6.5	13.9	21.4
연해주	9.9	1.3	8.8	3.6	4.8	18.3	24.1	6.8	22.5
하바롭스크	7.9	5.7	11.4	4.3	5.1	15.6	20.2	8.2	21.6
아무르	8.0	15.8	3.4	7.3	13.1	11.0	16.3	7.7	17.4
마가단	6.7	38.9	1.7	6.4	6.2	8.2	5.6	9.9	16.4
사할린	6.2	54.0	2.8	1.4	6.3	5.6	5.1	3.7	14.9
유대인 자치구	11.1	2.2	5.1	5.8	10.5	9.3	18.2	14.8	23.0
추코트카	0.7	50.1	0.4	11.3	5.2	4.7	4.4	10.3	12.9
극동전체	7.1	28.2	5.4	4.2	6.7	10.6	13.2	6.7	17.9

자료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2018.

- 사하공화국, 사할린, 추코트카 지역은 자원채굴 부문이 전체 산업생산의 50%를 상회하나 연해주와 유대인자치구는 각각 1.3%와 2.2%에 그치고 있어 자원의존적 산업구조도 연방주체별로 편차가 큼
 - 캄차카 지역은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한 어업이 발전해있으며 연해주 지역은 물동량의 수입관문이 되는 지역 특성상 교통·통신부문이 발전하였고 도소매업 등도 타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임
 - 하바롭스크 지역은 구소련 시절부터 항공, 기계 등의 산업이 발전한 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발전이 높은 지역
- 전체적으로 극동러시아의 산업구조는 자원채굴업의 비중이 28.2%로 가장 높고, 농어업(7.1%)을 제외할 경우 교통·통신 부문이 13.2%, 도소매 부문이 10.6%의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은 5.4% 수준
- 극동러시아는 넓은 영토에 비해 거주 인구가 매우 적고, 자원채굴 위주의 자원의존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제조업 기반이 취약
 - 극동러시아에서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지역이 산업발달 정도와 경제적 비중이 높아 그간 우리기업의 주요 협력대상이 되어왔음

- 특히 연해주 지역은 블라디보스톡 시를 중심으로 극동러시아 물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러시아 정부의 육성의지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경제협력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2.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의 주요 수단

-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추진목적은 에너지 수출주도 경제구조의 개선과 균형적인 지역발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의 편입 등임
-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부(2012년 5월 신설)와 극동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경제특구’, ‘극동개발펀드’, ‘러-중 농업펀드’ 등 다양한 정책시행
- 특히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경제특구’ 등을 통해 극동러시아에의 투자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인프라 지원 등을 시행

〈표 4〉 각 제도별 세제 혜택 비교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일반지역	특별경제지역
법인세	연방세: 첫 5년간 0% 지방세: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10%	연방세: 2% 지방세: 18%	연방세: 5년간 0% 지방세: ~13.5%
재산세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0.5%	~2.2%	10년간 0%
토지세	첫 5년간 0%	0.3~1.5%	5년간 0%
사회보장세	10년간 7.6%	30%	26%
부가세	신속히 환급 가능	18%	0%(SEZ항구 제외)
광물채굴세	1~2년간 : 0% 8~10년간 : 0.8%	3.6~16.5%까지 다양	-

자료 : 극동개발공사, KOTRA에서 발췌 정리

- 한편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의 방지와 인구정착을 위해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더불어 「극동헥타르 계획」(극동러시아 이주자에게 1헥타르 토지 무상공급)도 시행
-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선도개발구역(TOR)’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라고 볼 수 있음

〈표 5〉 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의 주요 수단

개발정책 주요 수단	주요 내용
선도개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및 지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장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정부가 극동러시아 개발을 목적으로 2014년 입안 ○ 인프라 정비, 세제 혜택 등을 법으로 보장하여 러시아의 극동러시아 경제, 사회발전 도모, 투자환경 조성이 목적 ○ 2018년 1월 기준으로 총 18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운영 ■ 선도개발지역 주요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개발구역 입주할 경우 세제 감면, 인프라 설치 등의 주요 혜택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감면, 지방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세 등에서 혜택
자유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및 지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정책은 선도개발구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연방법을 통해 발효한 경제특구의 한 형태 ○ 선도개발구역 정책 이후에 추진되어, 러시아 정부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자유항으로 지정된 연해주 일부 구역에 제공 ○ 대형 항구 도시 육성을 위해 연해주 남부지역을 자유항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도시(항만, 국경) 전체에 적용하며, 무관세 통관절차 적용 지역에 대해서만 지리적으로 한정 - 교역 확대와 국제화물 유치를 목표로 함 ○ 2018년 2월 기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구역은 총 5개 지역의 21구역 ■ 자유항 주요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사회보장세 등 세금 혜택은 선도개발구역법과 거의 동일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대부분 2085년까지로 지정
제도 간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개발구역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개념상 공통점은 있지만, 입주 기간과 정부지원 정도에서 차이점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개발지역은 입주기간이 70년으로 길며, 정부지원 혜택도 높고 광범위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의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제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타 경제특구와 비슷한 수준의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제도적 성격을 가짐. ○ 하지만 비자 혜택, 세제 혜택(소득세), 외국인력 고용 등에 있어 차이를 보임

자료 : 극동개발공사, KOTRA에서 발췌 정리

- ‘선도개발구역’은 극동러시아 지역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종의 경제특구정책으로 현재 러시아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
 -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이 법으로 보장된 구역으로 극동러시아 경제 및 사회발전 도모, 투자환경 조성이 목적
 - 개념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또는 러시아의 현행 특별경제구역과 유사하지만, 기간이 70년으로 길고 대폭 강화된 정부 지원이 차이점
 - 2018년 1월 기준으로 현재 총 18개의 선도개발구역을 지정·운영

-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 중앙정부의 핵심정책으로 현재 러시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극동러시아 발전을 저해하는 2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임
 - 러시아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극동러시아의 인구 감소로 이의 해결을 위해 ‘선도개발구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극동러시아로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두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개념이나 개발전략이 미비하였는데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계획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큰 틀과 육성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임
 -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더불어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설치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등의 주요 혜택이 제공됨

- 한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정책은 2014년 12월 푸틴 대통령이 제안하여 2015년 7월 연방법으로 발효된 경제특구의 한 형태
 - 생산 및 서비스 기반 구축, 인프라 건설, 사회개발 프로젝트 등이 주요 추진정책으로 2018년 2월 기준 총 5개 지역에 21 행정구역을 지정
 - ‘선도개발구역’ 정책 이후에 추진된 정책으로, 국가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및 특혜가 제공
 - 대형 항구도시 육성을 위해 연해주 남부지역을 자유항(Free Port)으로 지정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육성을 위한 생활 인프라 및 물류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선도개발구역’과 연결하고,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계하는 무역과 물류 특화를 지향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는 별도의 특구 조성이 아니라 지정된 도시(항만 및 국경) 전체에 적용하되 무관세 통관절차 적용 지역에 대해서만 지리적으로 한정된 것이 특징
 -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가 보유한 장점이 교역확대 가능성과 국제화물 유치에 있다고 보고 외국 투자 및 화물 유치를 목적으로 통관 간소화, 수출 목적의 원재료 수입관세 면제, 법인세 감면, 외국인 무비자 제도 등의 혜택을 제공
 - 자유항 인근 지역에서 항만물류, 과학기술, 수산업, 관광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 외부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 등 간접적 경제효과도 기대

- 주요 혜택을 보면 법인세, 사회보장세 등 세금 혜택은 선도개발구역법과 거의 동일하나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는 민간재원과 정부예산을 병행하여 활용하며, 통관부문에서 가장 큰 혜택을 부여
 - 교역화물 유치를 위해 관세 면제, 각종 세금 및 임대료 등을 감면해주는 한국의 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과 유사
 - 다만 인프라 건설에 있어 선도개발구역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에서는 민간재원 및 정부예산이 투입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가장 큰 특징은 통관 부문에 있어 주요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임
 - 국경통과소 24시간 업무수행, 사전통보제도, 단일창구제도(single window) 도입, 전자통관, 통관과 관련된 기관 간 중복업무 배제 등 통관 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혜택을 제공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대부분 2085년까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극동러시아의 지속적인 물류 인프라 개발 및 무역규모 확대를 통해 향후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물류 루트로의 편입을 위한 발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3. 국내기업의 진출사례와 향후의 진출전략

- 그간 극동러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대부분은 일부 농수산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지원을 목적으로 진출

〈표 6〉 극동러시아 진출 주요 국내기업

업종	기업명	지역	사업내용
제조	현대웰딩루스	아르썸	용접봉 생산
IT	도시교통시스템	블라디보스토크	간편 전자결제 시스템
종합상사	포스코대우		무역
	LS네트웍스		
항공운송	대한항공	하바롭스크	인천-블라디보스토크 운항
	아시아나		인천-하바롭스크, 인천-사할린 운항
	제주항공	블라디보스토크	인천-블라디보스토크 운항
	티웨이항공		대구-블라디보스토크 운항
	에어부산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운항
	DBS Ferry	동해-블라디보스토크 카페리선 운항	
해운물류	현대상선	블라디보스토크	해운·물류
	장금상선		
	범한판토스		
호텔	롯데호텔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유일의 5성급 호텔
판매	삼성전자		전자제품 판매
	LG전자		
	팔도	식음료 판매	
무역	롯데칠성	블라디보스토크	철 스크랩 매입, 한국 수출
	업카이트		
	다우스틸		
건설	쓰리씨통상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아파트 건설
	미르특장차		
	계룡건설		
금융	우리은행	블라디보스토크	금융서비스
	IBK기업은행		
수산	사조산업		명태조업, 한국 수출
농업	롯데상사	호롤	
	아그로상생	호롤, 향카 등	
	아로프리모리에	우수리스크	
	에코호즈	그리고리예프키	
	유니젠	햇산	
	포항축협	우수리스크	
	바리의 꿈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발췌 정리

- 지역적으로는 지리적 인접성과 물류인프라(항구·철도·도로 등)의 활용 용이성 등의 이유로 극동러시아의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선호
 - 제품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무역 및 판매시설, 물류운송 및 금융 등 주로 판매활동의 지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요 서비스업종을 위주로 진출
 - 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업종을 제외하고는 농업부문의 경우 영농법인이 진출하여 대두,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고 수산분야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의 조성을 시도
- 제조업 분야의 경우 그간 현지 제조업기반의 열악성, 노동력의 부족, 산업생태계의 미성숙 등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현지진출이 거의 부재하였으나 최근 들어 진출사례가 나타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용접봉 생산기업인 ‘현대웰딩루스’는 2018년 러시아 법인을 설립하고 아르좁시에 공장을 임대하여 용접봉을 생산, 즈베즈다 조선소로 납품
 - 동 사례와 같이 소규모(4개 라인, 20명 고용) 진출이기는 하나 틈새시장을 찾아 맞춤형으로 진출하면서 극동러시아의 제조업 공급사슬에 편입하려는 사례가 등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한편 수산분야의 경우 ‘나지모프 곶’ 지역에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잠정 중단
- 비록 지금까지는 극동러시아 지역에 대한 국내기업의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점차 동 지역에서의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올해 초(2019.2) 개최된 ‘한국투자자의 날’에 러시아 및 한국정부의 상호협력 및 지원약속과 더불어 관련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점차 극동 지역의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아직은 개발 초기단계이므로 여전히 사업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있으나 파격적인 세제상의 혜택 등을 기대하는 각국의 투자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금 더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여 선점효과를 누릴 필요
 - 정부차원에서도 진출 모색 기업에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전달 및 홍보책 등의 정책마련이 필요

- 국내기업의 경우 그간 매우 제한적인 진출만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최근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인프라 정비와 투자유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지역에서의 진출과 선점효과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진출방안 모색 시 특히 그간 대표적인 협력 기대사업으로 제시된 목재가공업, 조선업, 수산가공업, 양식업 등의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
 - 또한 최근 러시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 및 관광·리조트·컨벤션(MICE산업), 의료산업 등도 진출유망업종으로 볼 수 있음
- 진출전략 마련 시 진출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진출모델별 전략을 고려하고, 특히 진출업종이 각 선도개발구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업종)과 일치되도록 할 필요

〈표 7〉 극동러시아 진출모델 및 전략

진출모델	진출모델별 전략
틈새시장 공략형 (단순공정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봉 분야에 진출한 국내기업 사례를 참조하여 극동러시아지역내의 제조업 공급가치사슬을 업종별로 분석하고 그 정보를 소규모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 제공할 필요 ○ 단순공정분야의 소규모 진출을 통해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향후의 공급사슬 편입에 있어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 ○ 최근 들어 관광객 급증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미니호텔 등의 공급을 통한 관광산업에서의 진출도 고려할 필요
현지자원 활용형 (농림수산자원 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상태인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포함하여 양식어업, 스마트 팜, 온실재배사업, 농기자재 등의 분야에도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필요 ○ 특히 목재펠릿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에서의 진출전략 필요
기술활용 협력형 (IT, BT, MT, 의약품 제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반 기업 및 스타트업 등은 극동연방대학이 정부지원 하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혁신단지(R&D분야: IT, BT, MT 등) 등에서의 참여 및 R&D협력방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협력 및 진출방안을 모색 ○ 더불어 블라디보스톡의 루스크섬을 대상으로 러시아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국제의료특구'의 지정 및 조성계획에의 참여 및 협력방안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현지공단 진출형 (나제진스카야 전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나공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나제진스카야' 전용공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경험을 축적·확대할 필요 ○ '나제진스카야' 한려 협력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자동차 부품회사 10개사를 포함 약 28개의 국내기업이 의향서를 제출

자료 : 극동개발공사, KOTRA에서 발췌 정리

- 진출유형 및 특성에 따라 ‘틈새시장 공략형’, ‘현지자원 활용형’, ‘기술활용 협력형’, ‘현지공단 진출형’ 등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맞게 진출전략을 마련
- 진출전략에 따라 선도개발구역에의 진출을 고려할 경우 러시아 각 선도개발구역의 집중 육성분야와 육성정책 등을 고려
 - 미하일롭스키는 농축산물 가공, 발쇼이 카멘은 조선산업, 니콜라옙스크는 수산물 가공, 나제진스카야는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등 제조분야에 특화
- 한편 정부는 각종 입찰정보 등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과 기술협력 등을 위한 R&D협력방안의 모색에 노력
 - 현지에 기반을 둔 KOTRA를 적극 활용하되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체계의 구축도 고려
 - 특히 첨단과학혁신단지(R&D분야: IT, BT, MT 등)와 같이 정부지원 하에 극동연방대학이 구축하고 있는 R&D사업에의 협력방안 등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
- 극동러시아는 현재의 다소 열악한 진출여건에도 불구하고 북방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장기적으로는 제2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중급국가(middle power)로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최적의 협력 상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
 -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대국(super power)인 중국과의 적극적 경제협력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우려감이 존재하고, 일본의 경우 긴밀한 미-일 군사동맹체제 및 북방영토문제 등 협력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존재
 - 북방경제에의 진출 및 파급효과는 사실상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본격화될 때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3각 협력사업의 본격화 등은 그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고 사업추진시 고려해야할 정치경제학적 변수도 매우 다양하므로 우선 현시점에서 가능한 진출방안이라도 적극 고민해야 할 것임.
 - 또한 향후의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하고 참여하게 하는 ‘용리(用利)전략’도 병행할 필요

참고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 「극동러시아 유망 창업아이템과 진출방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 김학기(2018),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남-북-러 3각 산업협력」, 산업연구원.
- 이기열, 신수용, 최나영환, 이현주, 조진철, 유현아, 어은주, 송정현(2018),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토연구원.
- 김학기·김민지(2017), 「러시아 극동지역 조선산업 동향과 한-러 협력방향」, 산업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news.kotra.or.kr> 해외시장뉴스.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전인우

편집인 : 전인우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